

## CBS, 작은교회 세우기 앞장

작은교회세우기연합과 MOU  
음악회 등 문화 선교에 앞장  
새터민과 사랑나눔 행사도

CBS(사장 이재천)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작은 교회 세우기운동과 문화선교에 앞장서고 있다. CBS와 작은교회세우기연합(대표 정성진 목사)은 지난 2월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작은 교회를 세우기위한 다양한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작은교회세우기연합은 전국에 8개의 거점 교회들을 중심으로 50여명의 사역자네트워크가 함께 동역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형 교회들의 자립과 부흥을 돕고 있다. 거점 교회들은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교회들로서 개 교회 이기주의를 벗어나 작은교회 돕기에 몰입양면으로 나서고 있다.

CBS와 작은교회세우기연합은 이번 양해 각서 체결과 함께 첫 번째 사업으로 '아마추어 가스펠 색소폰 콘테스트'를 지난 4월 21일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개최했다. 150여개팀이 참가해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이 기량을 펼친 이번 행사는 크리스천 색소폰 동호인들에게 찬양과 은혜의 무대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장르의 찬양문화를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CBS는 앞으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방송설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작은교회에 활력을 불어넣기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보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CBS는 오는 6월 26일(화) 수원 문



사진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아마추어 가스펠 색소폰 콘테스트, 크리스천 뮤직페스티벌, CBS-작은교회세우기연합 MOU 협약식.



화의 전당에서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을 초청해 사랑과 나눔, 섬김의 행사인 '통해야'를 준비하고 있으며 10월에는 23회째를 맞는 '크리스천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해 새로운 찬양 사역자를 발굴하는 등 한국교회의 문화사역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 ● 이재천 사장 인터뷰

## “CBS는 한국교회의 자부심”

바르고 따뜻한 세상 위해 기독교 문화 확산에 최선



이재천 CBS 사장이 새로운 임기 3년에 들어갔다. 이재천 사장은 CBS를 '한국사회의 희망'이요 '스마트 미디어시대의 선두주자'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한국교회를 더욱 겸손하게 섬기겠다고 밝혔다.

Q : CBS사장으로 연임된 소감은?

A : 부족한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연임 기회를 주신 CBS재단 이사회를 비롯한 CBS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어려운 시기에 연임을 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 앞으로 CBS가 한국사회의 희망이 되고, 한국교회에 자부심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Q : 지난 3년간 경영성과는?

A : 2009년 6월 사장에 취임했을 때 미국발 금융위기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 한국교회의 기도와 성원 그리고 CBS 구성원들의 헌신과 희생에 힘입어 위기를 넘겼고, 2010년에 이어 지난해엔 상당한 흑자를 달성했다. 특히,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웹과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미디어 인프라를 구축한 것은 의미가 크다. CBS가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주도하고, 나아가 선두주자로 도약할 수도 있게 됐다.

한국교회가 CBS를 자랑스럽게 생각하

기 시작한 것도 큰 성과다. 교계지도자들과 성도님들이 CBS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교회의 인정을 받고, 관계가 좋아진 것이 큰 보람이다. '바르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 공헌을 확대하는데도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Q : 앞으로 3년간 CBS의 경영방향은?

A : CBS가 한국사회의 희망이자 한국교회의 자부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바르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특히, 양질의 크리스천 콘텐츠 생산으로 기독교 문화를 확산시키고, 기독교에 대한 사회 일각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는데 주력하겠다. 크리스천 저널리즘 기능을 활성화해 바람직한 선교방향을 제시하고 크리스천 정보센터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스마트 미디어는 세계 복음화를 실현하기에 매우 좋은 매체다. 스마트 미디어에 적합

한 선교 콘텐츠를 적극 개발해 해외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데 앞장서고자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CBS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화,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다.

Q : 미디어법 제도 도입 등으로 미디어 환경이 악화됐는데, CBS의 대응은?

A : 콘텐츠 경쟁력의 제고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앞으로 CBS가 생산하는 선교 콘텐츠는 고급화를 지향하고 일반콘텐츠는 디지털 저널리즘을 지향하도록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할 것이다. CBS는 그동안 크로스미디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해 현재 국내 언론사로는 최초로 TV, 라디오, 인터넷, 모바일, 신문 등 모든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 맞춤형, 수용자 니즈 중심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생산과 유통으로 승부하고자 한다. 관건은 스마트 미디어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CBS 전 직원이 어느 때 보다 영성훈련과 말씀으로 영적 재무장을 하고 있어서 어떤 난관도 능히 헤쳐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 깨끗하게 '불륨 업' 하세요

3월 남원중계소 개국  
6월엔 홍성 첫 전파  
전국 가시청권 확대

그동안 CBS 전파가 제대로 미치지 못하던 남원과 홍성지역에서도 CBS를 청취할 수 있게 됐다.

### ■ 전북CBS 남원중계소 개소

남원중계소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월25일 개국예배(남원 동북교회)를 통해 공식적인 방송 송출을 시작했다. 주파수 90.7MHz, 출력 200W의 남원중계소가 개소됨에 따라 그동안 방송신호가 미약했던 남원, 임실, 순창지역 등에서도 유익한 전북CBS방송을 맑고 깨끗한 음질로 청취가 가능하게 됐다.

### ■ 대전CBS 홍성중계소 개국

충남 서북부지역의 난청 해소를 위한 홍성중계소도 5월8일 관할기관의 준공검사를 끝으로 본격적인 개국준비를 하고 있다.

홍성은 특히 충남도청 소재지로 선정돼 올해 12월 말까지 도청이전이 계획되어 있어 많은 기관과 인구의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어 주요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홍성과 예산일원을 커버리지로 하는 CBS 홍성중계소는 주파수 99.3MHz, 출력 100W로 6월1일부터 공식적으로 방송을 시작하며 6월4일 개국예배, 6월 19일 개국음악회등의 행사가 열린다.



지난 3월 1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CBS '라디오' 제작진이 라디오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CBS 라디오, 주요 방송상 휩쓸어

### 한국PD대상 3개중 2개 수상 방통위방송대상·기자상 영예

CBS 라디오가 한국PD대상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한국기자상을 연이어 수상하며 뛰어난 콘텐츠 제작능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CBS 라디오는 지난 3월 EBS에서 열린 제24회 한국PD대상 시상식에서 라디오 작품상 부문 3개 부문 중 2개 부문을 휩쓰는 쾌거를 이룬 데 이어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2 방통위 방송대상에서는 라디오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지난 3월 제43회 한국기자상 시상식에서는 노컷뉴스 윤창원 기자와 전북CBS 이균형, 임상훈 기자가 수상해 국내 언론사 가운데 유일하게 두 개부문에서 상을 받는 쾌

거를 이룩하였다.

CBS는 제24회 한국PD대상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온 라디오 시사교양부와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대표적인 출근길 시사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국적 육아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가정의 달 특집 '수정이가 만난 세상'(유창수 PD)으로 2개 부문에서 작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2012 방통위 방송대상 라디오 우수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 6부작 '라디오'는 영국, 칠레, 르완다, 일본 등 해외취재와 국내취재를 통해 지진, 탄광 붕괴와 내전 등 자연재해와 분쟁, 갈등으로 피폐해진 삶의 현장에서 위로와 화해의 매체로 큰 역할을 해 온 라디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집중 조명해 주목받았다.

## CBS 봄프로 개편 '세상과 소통'

### TV '만사형통' 'C 스토리' 등 더불어 사는 지혜 담아

#### ■ 김창옥 오종철의 강의쇼, 만사형통

인기 프로그램 '김창옥 오종철의 강의쇼, 만사형통'이 다시 돌아왔다. 두 번째 시즌으로 방송에 복귀한 '만사형통'은 우리 삶과 신앙의 다양한 이야기를 강의

와 토크 형식에 담는다.

이번 시즌에는 출연자도 보강됐다. 특유의 재치와 유머를 통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김창옥 소장(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겸임 교수)과 방송인 오종철은 여전히 '만사형통'의 호스트를 맡았다. 이들과 함께 '얼짱' 영어 강사 레이나(김효은)와 국내 패션 큐레이터 1호 김홍기가 토크패널로 참여한다. 방송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방청을 원하면 공개 녹화에 참여할 수 있다. [www.facebook.com/cbstong](http://www.facebook.com/cbstong)

#### ■ C 스토리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이은 또 하나의 강연 프로그램 'C 스토리'로 시청자의 가슴을 두드린다.

'C 스토리'는 TV로 만나는 '크리스천 특강 릴레이 프로그램'으로,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연사로 출연하여 신

앙에 바탕한 지식, 생각, 삶, 우리를 이야기하는 대중강연회 형식으로 방송된다.

국내에도 강연 신드롬이 불면서 많은 특강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있는 있지만, 스펙이나 스킵을 채우는 데 급급한 세속적인 목표에 치우치기 보다는 신앙이라는 중심 안에서 보다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의 유익과 아름다운 스토리를 함께 쌓아나가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강연 연사는 목회자에서부터 회사원, 전문가, 배우, 교수, 주부, 개그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와 가치를 신앙의 토대 위에서 함께 나누어줄 분들이 출연한다.

3월 26일 첫 선을 보인 'C 스토리'는 2주에 1회 공개 강연회 형식으로 목요일 저녁 7시 정릉동 뽕엘교회에서 진행되며, 녹화&강연회 관람문의는 02-923-6481 이다.

매일 15분, 크리스천 특강 타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기대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크리스천 강연회'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 라디오 성경통독·신앙 제언 등 선교에 역점

CBS 라디오(표준FM 98.1MHz / 음악 FM 93.9MHz)가 5월 21일(월)부터 봄철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선교와 시사뉴스 편성으로 청취자를 찾아가고 있는 CBS 표준FM은 이번 봄 개

편에서 선교기관으로서의 CBS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선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선교 기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CBS 아나운서들이

모두 동참하여 만든 성경통독 녹음을 활용한 성경통독 프로그램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매일 밤 9시부터 30분간 찬송가와 함께 편성하고, 주일 오후 5시 5분에는 한국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교계의 주요 의제들을 들어보는 한편,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천 리더들의 신앙과 제언을 들어보는 'CBS광장'을 편성한다.



# 전 직원 영성훈련... 감동·은혜의 CBS로

2010년서 2년간 173명 참가  
업무·생활에 큰 변화 바람  
성경통독·기도모임도 생겨

CBS 직원들이 '전직원 영성훈련'을 통해 받은 감동과 은혜가 업무와 생활에 잔잔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CBS에 뜨거운 신앙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201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직원 영성훈련'은 이재천 사장이 취임한 후 "3년 동안 전직원이 한 차례씩의 영성훈련을 받도록 하자"는 제안으로 시작되었는데, 만나 BTD, 사랑의 동산, 골든 TD, 사랑의 불꽃운동, 모새골 영성학교, 다일공동체 아세찾기, 예수원 등 2박3일 또는 3박4일로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다양한 영성훈련 중에 본인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지금까지 약 2년여 동안 173명의 직원들이 다녀왔는데, 이는 본사 전직원의 3분의 2에 가까운 숫자로 이대로라면 3년 안에 전직원이 영성훈련을 마칠 수 있게 되리라고 예상된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지역본부 직원들이 영성훈련에 참가하기 시작해서 현재 약 3분의 1이 넘는 직원들이 다녀왔다.

직원들이 영성훈련에 다녀오게 되면서 아침 직원예배 참석인원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을 보면 직원들이 '전직원 영성훈련'을 통해 CBS의 선교적 사명에 대한



모새골 영성학교가 주최한 영성훈련에 참가한 CBS 직원들이 인도자인 임영수 목사를 모시고 한자리에 모였다.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점심시간에 성경통독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현재 느

헤미야서를 읽고 있다. 매일 첫째 주 월요일

점심시간에는 영성훈련에서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간직하고 그 때 다짐한 계획과 비

전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영성훈련 참가자 기도모임'으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국내 성지순례 CBS가 발벗고 나섰다

● 제주CBS '제주 순례길' 내달 18일 개장



제주선교역사가 시작된 금성교회 옛 성전

제주선교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제주CBS가 6월 18일 제주선교 역사를 담은 제주 순례길을 개장한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모티브로 시작된 제주 올레길이 걷기에만 치중한 반면 제주 순례길은 제주 기독교 역사를 따라 신앙을 지켜온 선조들의 발자취를 함께 걸어보는 의미있는 순례길로 차별화되어 있다.

이번에 개장하는 제주 순례길 1코스는 제주선교 역사가 시작된 금성교회와 옛 기도처를 시작으로 조봉호 선생 생가, 이도종 목사 생가, 한림교회, 협재교회까지 연결돼 제주선교의 역사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그 길을 걸을 수 있다.

제주CBS가 믿음의 선조들의 순수한 신앙을 따라가는데 초점을 맞춰 마련한 제주 순례길은 앞으로 제주지역 선교역사를 가진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별 코스 개발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선조들의 신앙 발자취 되새겨

●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신안 증도 돌아보기



문준경 전도사가 개척한 증동리 교회

문준경 전도사 성령현장 체험

증도는 주민의 90%가 기독교인이다. 섬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고 팔지도 않는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된 곳이다.

이는 문준경 전도사를 통해 일어난 성령의 역사와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의 영향력이 살아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6·25전쟁 때 순교한 문준경 전도사는 일제시대부터 1950년 10월 순교하기까지 전남 신안군 일대 10여개 섬에 모두 11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에 힘썼으며 순교의 순간까지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다른 성도들의 생명을 구한 순교자이다.

CBS는 단순히 유적지를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현장을 둘러보며 집회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다.

문의전화 CBS 2650-7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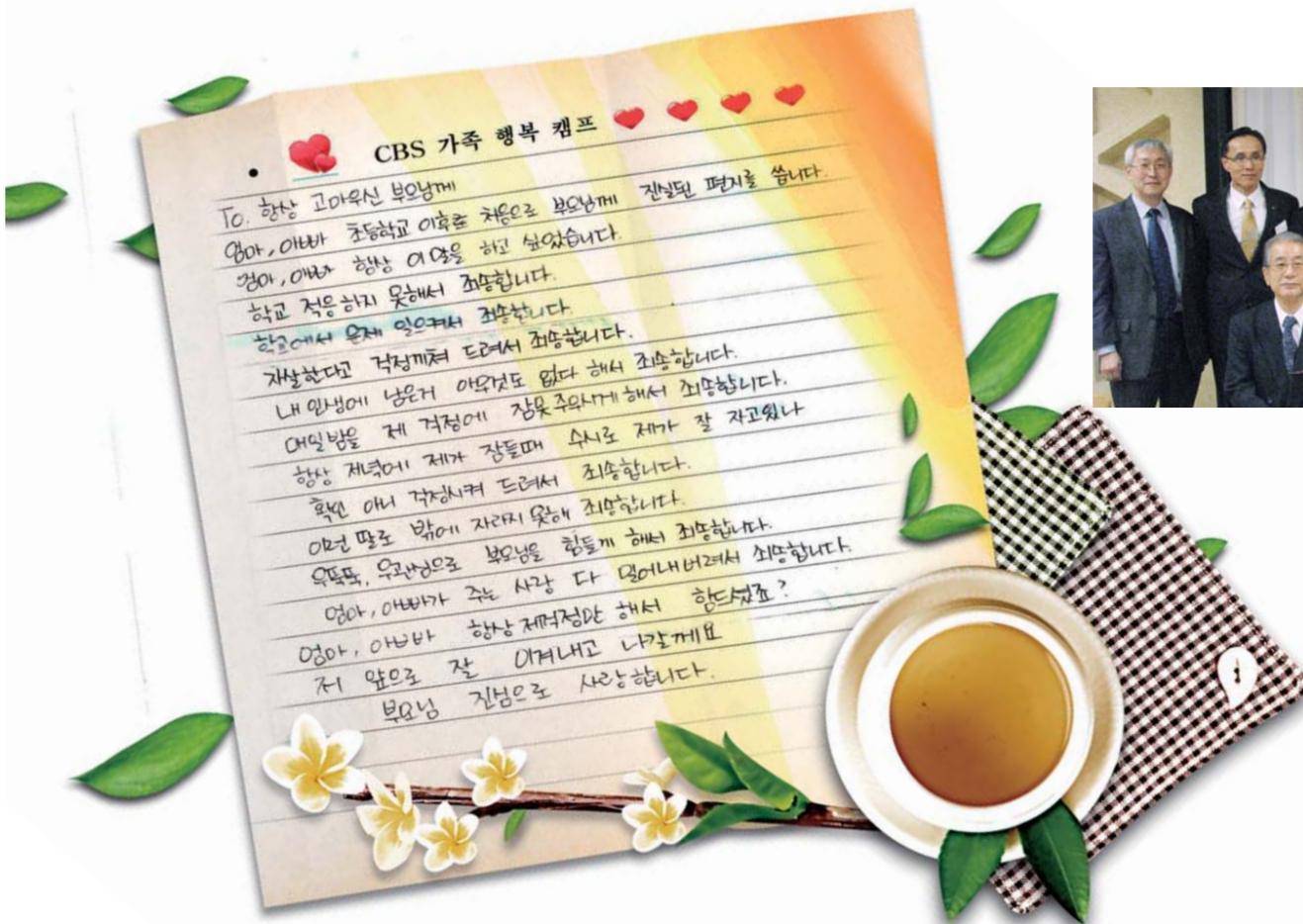


## 중보기도단 통성기도 CBS의 신앙 불지펴

지난 1월 19일, CBS를 뜨겁게 사랑하는 각 교회의 기도대장들이 모여 창립한 'CBS중보기도단'이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모여 CBS를 달구는 아궁이가 되고 있다.

매주 약 30여 명의 단원들이 CBS 예배실에 모여 한 시간 동안 네 가지의 기도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첫째는 표준FM, 음악FM, CBS TV의 한 프로그램을 정해 제작자와 진행자를 위해 기도하고, 둘째는 각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직원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고, 셋째는 중보기도 단원들이 내놓은 각자의 기도제목을 위해, 그리고 넷째는 사목실에 접수된 일반 성도들의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마침 예배실이 지하 2층에 있어 중보기도 단원들은 스스로 CBS를 달구는 아궁이라고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각 교회에서 기도대장이라 불리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여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너무 뜨겁고 진지하여, 피디들과 진행자들이 자기 프로그램을 위해 기도하는 날에는 자신해서 내려와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다.



일본에 CBS 콘텐츠 송출  
CBS한일연합선교회 준비 분주

CBS한일연합선교회는 일본복음화를 위해 인터넷TV와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프로그램 송출을 올해 안에 개시하기로 하고, 현지 사무소를 30만명 이상이 순교한 땅 '나가사키'에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롭게하소서> <성서학당> 등 주요 프로그램을 일어로 번역 중이다. 또한 CBS한일연합선교회는 3.11 원전 사고로 고통 받고 있는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을 위해 생수 30톤(6만병)을 기증하기로 했다.

# 빛과 희망주는 CBS 가족행복캠프

CBS가 시청자와 교인들을 위해 다양한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월 7일 과천소망교회에서 열렸던 CBS 가족행복캠프는 '가정행복과 청소년의 비전 회복'을 주제로 CBS와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김영진 목사)가 함께 주최했으며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여해 가족의 소통과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기관으로서 가정의 회복을 위한 1일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찬양과 댄스로 즐겁게 시작하여 간증과 특강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부모와 자녀 간에 편지 교환, 그리고 마지막에 세족식으로 이어진 프로그램은 흥겨움과 감동을 함께 주는 뜻 깊은 시간으로 마련되었으며 참가자들이 향후 개최 일정을 앞 다퉈 문의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 찬양·간증·가족편지교환 가정행복·소통으로 하나 경기도 각지역 순회 개최



CBS가족행복캠프는 올 한해 경기도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2월 23일(목)부터 2월 25일(토)까지는 애니그렘코칭연구소(소장 이용오 목사)가 주관한 CBS플러스업캠프가 107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남산 유스호텔에서 열렸다.

'에벌레가 나비가 되는 캠프'를 슬로건으로 마련한 플러스업캠프는 애니그렘이라는 영성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성격과 기질적 특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달란트에 따른 맞춤 학습플랜을 만들어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프다.

최고의 강사진과 함께 찬양집회까지 진행돼 다른 학습캠프들과 차별화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며 앞으로 상설 학습코칭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선교후원 안내

“나는  
CBS방송선교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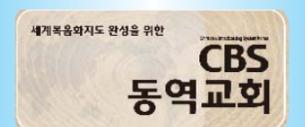
뉴 미디어에 의해 선교의 방법과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방송선교는 이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선교방식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기회입니다.

선교후원 안내 전화번호  
02-2650-7004  
CBS선교후원 계좌번호  
예금주:(재)CBS  
국민은행 802-25-0009-268  
우리은행 212-001999-13-045  
선교후원 ARS 060-600-7004

동역교회 안내

CBS동역교회는 CBS와 한국교회가 손잡고 펼치는 파트너십 선교전략입니다. CBS의 미디어선교기능 + 한국교회의 기도와 후원 = 전세계복음화.

- CBS동역교회가 되시면...
- ① CBS TV 자막 및 게시판 교회 행사 무료 홍보 서비스
  - ② CBS TV 영혼의 양식(5분 메시지) 무료 참여
  - ③ 문자 속보서비스 - 목회자에게 교계 뉴스 속보 문자 서비스
  - ④ CBS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여성합창단)교회 행사 공연 지원



## 소중한 후원의 결실... HD 송출 시스템 준공

CBS특별모금방송이 시작되고 15분쯤 지났을 때 드디어 첫 전화벨이 울렸다.

“거기 CBS죠? 지금 새벽 기도 마치고 왔는데요. 기도 중에 50만원을 헌금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어디에 헌금하라고 하시는 건지 궁금해 하면서 돌아와 평소대로 CBS TV를 켜는데 보여지는 화면이 <CBS를 전세계로~ 한 구좌 50만원> 아!! 이거였구나” 하시면서 전해주시는 권사님의 온라인 입금이 이번 모금방송의 첫 입금자로 기록되었다.

또 '말기 암으로 다리 절단 수술을 받고도 CBS에 후원하며 삶의 기쁨을 누리는 후원자님, 허름한 여관에서 기거하며 막노동으로 힘들게 지내지만 CBS 모금방송에서 태국 등 다른 나라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 1구좌(50만원)를 후원하신 익명의 시청자님, 또한 찜질방에서 밤새 일하고 돌아오신 유 권사님은 집에 돌아와 6시 첫방송을 보고 “좋은 화질로 전세계에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하시면서 100만원을 헌금하셨고 그래도 괜찮으시



CBS TV주조정실 HD송출시스템 준공 태요 커팅.

냐고 물었더니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겠죠” 라며 웃으셨다.

이러한 귀한 사랑에 힘입어 CBS는 주조정실 HD 송출시스템을 준공할 수 있었다. 다시한번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시책에 따라 CBS도 2013년부터

디지털 의무 방송을 시작해야한다. 올해는 HD제작시스템 구축(60억원 소요)을 위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겠지만 세계방송선교를 위해 언제나 기도하며 성원해주시는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있기에 CBS는 거침 없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려고 한다.